

국어 음운 교육의 한 방안*
- 자·모음의 분류 기준을 이용한
음운의 동화 교육을 중심으로 -

조창규
(원광대학교)

Jo, Chang-gyu. (2013). On a Method of Korean Phonology Teaching - Focusing on Assimilation Teaching Using the Standard of Vowel and Consonant Classificatio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n Journal, 21(3), 363-383. This study is to introduce some phonological features in Korean phonology teaching, however it does not emphasize the needs of either an establishment or education of them, and instead suggests some activities to investigate phonological assimilation by using the standard of vowel and consonant classification in that unit. This may require some arbitration processes of phonological features in order to explain either vowel assimilation by consonant or consonant assimilation by vowel. Because both phonological features and the standard of vowel and consonant classification are established when considering phonetic features, it is possible to investigate the phonological variation on a fundamental truth without any learning burden. Students can develop analytical and grammatical thinking power as well as improve their inquiring mind by means of exploring phonological phenomena using phonological features. The ideas of this study will be introduced only to 'grammatical' studies in "Reading and Grammar", an optional subject in high school. Doing this will distinguish "Korean", a common subject, and "Reading and Grammar", while also emphasizing the features of "Reading and Grammar" as an advanced learning proces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주제어(Key Words): 국어 음운 교육(Korean phonology teaching), 음운자질(phonological features), 음운동화(phonological assimilation), 음운규칙(phonological rules), 자음과 모음의 분류 기준(the standard of vowel and consonant classification)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비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1. 머리말

음운의 변동을 기술하는 방법에는 분절음을 단위로 하여 기술하는 방법과 음운자질을 단위로 하여 기술하는 방법이 있다. 즉, ‘국물 → 궁물’은 ‘ㄱ’이 ‘ㄹ’ 앞에서 ‘ㅇ’으로 바뀐다 또는 이를 형식화하여 ‘ㄱ→ㅇ/____ㄹ’으로 나타낼 수 있다. 반면에, 이를 음운자질로 나타내면, ‘[-전방성, -설정성, -비음성, -긴장성, -유기성] → [-전방성, -설정성, +비음성, -긴장성, -유기성] / ____ [+전방성, -설정성, +비음성]’과 같다. 분절음에 의한 음운 현상의 기술은 중등학교에서 이용되고 있다. 반면, 대학의 국어음운론 시간에는 편의상 분절음으로 기술하기도 하지만, 음운자질을 이용하여 음운현상을 기술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음운자질은 분절음들이 갖는 음성적 특질들을 각각 하나의 단위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분절음은 음운자질의 동시적 묶음이라 할 수 있다. 음운자질을 이용하여 음운현상을 기술하면 연계 되는 장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분절음들은 서로 대립을 이루기도 하고, 자연부류를 이루어 어떤 음운현상에 있어서 동일하게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분절음을 최소 단위로 보게 되면 분절음의 어떤 특성 때문에 차이를 보이거나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지를 잘 드러낼 수 없다. 그러나 음운자질은 분절음이 갖는 음성적 특성을 나타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절음 간의 대립이나 동일한 행동의 원인을 잘 보여줄 수 있다. 다음으로, 음운현상 특히 음운동화의 원인을 잘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주채(2011:111)의 지적처럼 음운자질은 분절음의 음가를 음성적으로 정의된 자질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음성 기술의 기능을 가진다.

음운현상의 기술에서 장점을 보이는 음운자질을 중등학교 음운 교육에서 도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다음 몇 가지일 것이다. 첫째, 분절음만으로도 음운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고 그것만으로도 중등교육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음운자질은 동화와 이화 현상과 같은 자질변경규칙을 기술하는 데에는 장점이 있지만 분절음 전체가 변화를 입는 탈락이나 삼입, 음운도치 등에는 큰 장점이 없기 때문에 동화와 이화만을 설명하기 위해 음운자질을 도입하는 것은 너무 큰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음운자질에 대한 교육과 그것을 이용한 음운현상의 설명은 번거롭고 학습의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학문적인 탐구라기보다는 언어현상을 탐구하여 그것을 실제 언어생활에 이용하는 데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음운자질을 이용한 음운현상의 기술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원리 중심, 탐구학습 중심의 문법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음성학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분절음보다는 음운자질을 이용한 음운 교육이 필요하다. 음운현상의 기술 또는 탐구에서 음운자질을 이용하면, 우리는 학생들에게 분석적 태도를 기를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원인에 대한 탐구력,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이고, 공통성을 찾아내거나 같은 성질을 가진 것들끼리 분류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길

러 결과적으로 문법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본고에서는 두 가지를 제안한다. 하나는 국어 음운 교육에서 음운자질의 개념을 도입하되, 음운체계를 학습하는 단원에서 제시하는 자음과 모음의 분류 기준을 이용하여 음운의 동화현상을 탐구하는 활동을 제안한다. 다만, 자음에 의한 모음의 동화나 모음에 의한 자음의 동화를 설명하기 위해 음운자질을 약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음운자질이 음성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이고, 자음과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 역시 음성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면 별도의 학습 부담 없이도 음운의 변동을 원리적인 면에서 탐구하는 일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다른 하나는 고등학교 선택 과목인 '독서와 문법' 중 '문법' 학습에서 음운자질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통과목인 국어와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고, 국어 과목의 심화 과정인 '독서와 문법'의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 연구 검토

국어 음운 교육에서 음운자질을 이용하자는 논의가 이관규(2004), 김유범(2010), 나영은(2012)에서 있었다. 이 중 김유범(2010)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음운 교육 부분을 검토하면서 네 가지의 음운론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생성음운론의 설명력을 도입하여 음운현상의 원리를 이해하는 탐구학습을 유도하자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음운자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검토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이관규(2004)와 나영은(2012)에서는 구체적인 음운자질을 제시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므로 이 두 업적을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이관규(2004:171~191)는 국어 음운 교육에서 음운자질을 도입하자는 본격적 제안이다. 이 업적에서는 “단순 나열의 문법 지식을 지양하고 원인 이해라는 탐구 학습의 본질적 교수 학습을 위해서, 학교 문법에서의 최소 문법 단위를 음운이 아닌 음운자질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1)과 같은 음운자질을 제시하였다. 이 음운자질은 일반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게 교육의 수월성을 따진 것이라 한다. 그리고 이어서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유음화(설측음화 포함), 유성음화, 사잇소리현상 등을 음운자질로 설명할 때 연계 되는 설명력을 예시하였다.

(1) 국어 음운자질(이관규, 2004:179)

- a. 주요 부류 자질 : 성절성, 자음성, 공명성
- b. 자음 분류 자질 : 조음 방법 자질 - 지속성, 지연 개방성, 비음성, 설측성
 - 조음 위치 자질 - 전방성, 설첨성
 - 발성 유형 자질 - 유성성, 유기성, 긴장성

- c. 모음 분류 자질 : 헛몸 자질 - 고설성, 저설성, 후설성
입술 자질 - 원순성
- d. 운율 자질 : 장음성, 고조성

그러나 ‘된소리되기, 사잇소리현상’은 음운자질을 이용하여 기술하더라도 규칙이 그 원인을 포착하지 못하므로 음운자질을 이용한 기술이 그리 유용하지 않다. 음운자질은 동화현상과 이화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성음화’는 국어에서는 이음과정이기 때문에 음운규칙이라 할 수 없다. 물론 학교문법에서는 음운과정과 이음과정을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그리고 (1)에서 국어의 음운자질이라고 하였지만 ‘유성성’은 국어에서 비변별적이기 때문에 음운자질로 설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나영은(2012)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음운 교육 방법으로 음성학과의 연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암기식 수업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음운 교육에 음운자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음운자질을 도입함으로써, 음운과 음운 변동의 체계적 이해가 가능하고, 탐구학습의 적용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나영은(2012:54~101)은 (2)와 같은 교육용 음운자질을 선정하고, 음운자질을 이용한 국어 음운의 동화 현상(비음동화, ‘이’모음 역행동화, 구개음화)에 대한 탐구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 교육용 음운자질(나영은, 2012:54~101)

- a. 주요 부류 자질 : 울림성, 자음성, 음절성
- b. 자음 분류 자질 : 조음 방법 자질 - 파열성, 마찰성, 비음성, 유음성
조음 위치 자질 - 혀끝성, 앞쪽성
발성 유형 자질 - 긴장성, 유기성
- c. 모음 분류 자질 : 고설성, 저설성, 후설성, 원순성

(2)에서 ‘울림성, 음절성, 혀끝성, 앞쪽성’은 각각 ‘공명성, 성절성, 설정성, 전방성’을 교육적 목적에 따라 수정한 것이다. 이 업적은 음운규칙 중 음운자질이 직접 관여하는 동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이관규(2004)보다는 진일보한 업적이다.

그러나 이 두 업적을 중등학교 교육에 그대로 수용하는 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음운자질이 음운의 동화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시 (1)이나 (2)와 같은 음운자질에 대한 교육은 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부담량을 고려할 때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이 든다. 둘째는 이런 음운자질들을 교육한다고 할 때,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질들을 제시하고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이다.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공통)국어’ 그리고 선택 과목인 ‘독서와 문법’에서 제시하는 자질과 자질 제시 방법은 달라야 할 것이다. 학습자의 수준, 이해 정도, 학습해야 하는 음운현상의 위계에 따라 교육

내용이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과 (2)에서 제시하는 자질들은 대학의 어문학계열의 언어학개론이나 음운론 강의에서 제시하는 음운 자질과 차이가 없다.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새로운 내용을 교육하고자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은 다 음 여섯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 시간을 할애할 만큼 가치 있는 내용인가? 둘째, 그 내용을 교육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셋째, 학생들이 받게 될 학습 부담량은 어느 정도인가? 넷째, 교사가 교육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는가? 다섯째, 학습의 연계성 또는 위계성은 어떠한가? 여섯째, 어느 단계에서 가르쳐야 하는가? 음운자질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 여섯 가지 점을 간략하게 검토해 보자.

먼저, 첫째, 둘째와 관련하여, 음운자질은 음성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음운교육을 음성학적 지식과 관련시킬 수 있으며, 음운자질을 이용하면, 분절음을 이용한 음운 기술과 달리 음운 현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또한 언어자료를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분석력, 원인에 대한 탐구력,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길러 줄 수 있고, 이런 능력은 다른 언어 현상을 탐구하는 데에도 파급될 것이다. 따라서 음운자질은 교육할 가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문법적 사고력을 신장시킨다는 문법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셋째 항은 중등학생들의 학습량을 고려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다. 새로운 내용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전혀 주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가능한 그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학습한 내용을 확장해서 학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미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심화한 것이므로 학습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넷째 항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부담이 적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앞에서 검토한 두 업적처럼 음운론 강의에서나 소개되는 내용을 중등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한다면 교사의 부담은 실로 클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제안은 교사의 부담도 제한적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여섯째와 관련하여, 음운의 변동에 대한 내용은 초등학교에서 표기와 발음의 차이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하여 중학교 '국어' 시간에 학습한 '음운의 체계와 음운의 변동'은 고등학교 '(공통)국어'와 선택과목인 '독서와 문법'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다. 이 중 고등학교 공통국어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가장 많은 음운 현상을 다루고 있다. 그 결과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도 있고 새로이 추가된 내용도 있다. 그리고 음운의 변동 교육은 표준 발음법과 관련시켜서 교육한다는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분절음 단위의 음운교육도 별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음운자질을 이용한 음운교육은 선택과목인 '독서와 문법'에서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독서와 문법을 학습하는 학생들은 음운의 체계와 음운의 변동에 대해 이미 두 번 학습하였으므로 보다 심화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음운자질이 갖는 장점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그것은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공통)국어' 시간에 학습한, 자음과 모음을 분류할 때 이용하였던 용어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앞에서 언급한 이유

때문에,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독서와 문법' 교과에서 자질을 이용한 음운교육을 제안한다.

3. 교육과정과 교과서 검토

현행 중등교육과정에서 음운체계와 음운의 변동에 대한 내용은 중학교 3학년 '국어'부터 고등학교 '국어1·2', '문법'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문법(독서와 문법 I·II 중 문법)'은 2007 교육과정과 2009 교육과정이 학년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어 자못 복잡하다. 중학교 3학년(이하 9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하 10학년)까지는 2007년 교육과정을, 고등학교 2학년(이하 11학년) 과목인 '독서와 문법' 중 '문법'은 2009+개정 2012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 5])을 검토하기로 한다. 교과서는 현재 중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용되고 있는 교과서를 검토한다. 먼저, 교육과정을 검토해보기로 하자.

(3) 9학년 ~ 11학년 교육과정

a. 9학년 국어(2007 교육과정)

- 교육 내용 : 국어의 음운체계를 이해한다. ① 국어 음운체계의 개념 이해하기, 국어 음운의 특성 이해하기, 국어 음운의 변동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 교수·학습 방법 : 국어 음운체계의 개념과 국어 음운의 특성을 학습자들이 탐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음운의 변동은 표준 발음법의 구체적인 조항과 연결시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b. 10학년 국어 1·2(2007 교육과정)

- 교육 내용 : 국어의 음운 규칙을 안다 - ① 두음법칙, 모음조화, 구개음화, 설측음화, 경음화, 탈락 현상 등의 음운 규칙 이해하기 ② 국어의 음운체계와 변동 규칙에 따라 바르게 읽기 ③ 음운규칙과 표준발음, 표기의 관계 이해하기
- 교수·학습 방법 : 국어의 음운체계, 음운 규칙, 표준 발음법 등을 그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되, 특히 표준 발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c. 11학년 '독서와 문법' 중 문법(2009+개정 2012 교육과정)

- 교육 내용 : (5) 음성, 음운의 세계를 탐구하고 올바르게 발음 생활을 한다. (6) 음운의 변동을 탐구하고 올바르게 발음하며 표기하는 생활을 한다.
- 교수·학습 방법 : 5. 교수·학습 방법 - 나. 교수·학습 운용 - (4) 문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교수·학습을 전개한다.
 - 실제 국어 자료나 현상을 제시하고 학습자가 원리나 규칙을 스스로 도출하도록 지도한

다. 음운, 단어, 문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담화 차원에서도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국어 자료를 다루는 문법 교수·학습에서는 문제 제기, 가설 설정, 가설 증명, 결론 도출, 결론의 일반화와 같은 학습자의 탐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3)에서 보는 것처럼, 교육과정에서 9학년 국어 음운 교육의 성취기준은 ‘국어의 음운체계를 이해한다’인데, 이에 대한 학습 내용의 예시로 ‘국어의 음운체계, 국어 음운의 특성, 국어 음운의 변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국어 음운의 체계를 이해하는 데에 학습의 중점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10학년 국어 음운 교육의 성취 기준은 ‘국어의 음운규칙을 안다’인데, 학습 내용의 예시로 구체적 음운규칙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것들을 표준 발음, 표기법과 관련시키고 있다. 이는 국어 음운의 변동에 학습의 초점을 두되, 학습한 내용을 실용적인 언어생활과의 연계 교육을 제시한 것이다. 선택 과목인 11학년 ‘문법’은 9학년과 10학년 과정이 종합·심화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은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은 원리 중심의 학습과 탐구학습 그리고 실제 언어생활과의 연계이다. 이는 암기식, 주입식 수업보다는 언어 현상을 분석하고 탐구하는 학생 활동 중심의 학습을 강조하는 것이며, 학교 문법이 실용문법이기 때문에 학습 내용을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교과서는 이런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편찬되었다. (4)는 9학년부터 11학년까지의 국어 음운 교육과 관련된 교과서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이다.¹⁾

(4) 교과서의 음운 교육 내용

a. 9학년 국어

- 소단원 : 음운의 체계²⁾, 음운 규칙 : 비음화(12), 유음화(12), 구개음화(11), 음절끝소리 규칙(10), 축약(9), 탈락(9), 경음화(=된소리되기, 4), 첨가(3), ‘ㅣ’모음 역행동화(1), 모음조화(1)

b. 10학년 국어1·2

- 1) 2007년 교육과정부터 국어교과서는 검인정체제로 바뀌었다. 중학교 국어교과서는 12종이, 고등학교 국어교과서는 16종이 독서와 문법 교과서는 6종이 개발·보급되었다. 본고에서는 중학교 교과서 12종, 고등학교 교과서 16종을 모두 참고하였으며, 독서와 문법 교과서는 4종을 참고하였다. 중학교 교과서와 독서와 문법 교과서는 모두 2012년에 출판되었고, 고등학교 교과서는 2011년에 출판되었다(전시본 e-교과서는 2010년). 참고문헌 참조.
- 2) 소단원명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나 여기서는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단원명을 제시한 것이다. 10학년 11학년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제시된 음운의 변동은 본문뿐만 아니라 연습문제, 날개 등에 언급된 것까지 포함하였다. 소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음운규칙 또는 음운현상이 다뤄진 교과서의 수이다.

- 소단원 : 국어의 음운규칙, 음운 규칙 : 음절끝소리규칙(16), 비음(동)화(16), 유음화(설측음화 포함, 16), 구개음화(16), 탈락(자음군단순화 포함, 16), 경음화(15), 첨가(=사잇소리현상, 15), 두음법칙(14), 축약(음절축약 포함, 14), 모음조화(13), 'ㅣ'모음 역행동화(4), 양순음화(1), 연구개음화(1)
- c. 11학년 『독서와 문법 I · II』 중 '문법'
- 소단원 : 음운과 음운체계, 음운 규칙 : 음절끝소리규칙(4), 동화[비음화(4), 유음화(4), 구개음화(4)], 탈락(4)[자음군단순화, 'ㅎ'탈락, 'ㄹ'탈락, 'ㅅ'탈락, 모음탈락], 첨가(4)[사잇소리현상, 반모음첨가], 축약(4)[거센소리되기, 모음축약, 음절축약], 된소리되기(2), 'ㅣ'모음역행동화(2), 설측음화(1), 두음법칙(1)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0학년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은 음운규칙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모음조화는 9학년 1개 교과서와 10학년 13개 교과서가 소개하고 있으나, 11학년 교과서에서는 소개되지 않고 있다. 교과서에서 주로 제시하는 교수·학습 방법은 탐구 활동이다.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음운규칙의 내용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어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 과목인 문법에서도 단순 반복되고 있어서 차별성이 없다. 선택 과목인 '문법'은 9학년과 10학년에서 학습한 내용을 심화시키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원리를 탐구하는 활동이 요구되나 그런 것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통과목인 9학년과 10학년 '국어' 음운 교육에서는 분절음을 단위로 하여 기술하되, 선택 과목인 '독서와 문법' 중 '문법' 학습에서는 음운자질을 이용하여 동화현상을 탐구하는 활동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심화 과목인 '독서와 문법'의 성격이 분명해질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보다 심화된 문법 지식과 문법적 사고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이나 능력 또한 이런 활동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음운체계와 음운의 변동은 하나의 대단원 속에 묶여 있거나 인접 단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것은 음운체계와 음운의 변동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운의 변동을 교육할 때는 음운체계를 이용할 때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³⁾ 교과서의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운체계 교육과 음운자질 그리고 음운의 변동은 연속성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다.

3) 음운체계를 이용한 음운의 변동 교육은 조창규(2012) 참조.

4. 자음과 모음의 분류 기준과 음운자질

4.1. 자음의 분류 기준과 음운자질

자음은 입안이나 목안의 일정한 위치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장애를 받아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음을 분류할 때는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이라는 기준을 이용한다. 국어의 조음위치에 따른 자음의 분류는 ‘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등이 있고, 조음방법에 따른 자음의 분류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등이 있다. 그리고 국어의 ‘파열음, 파찰음’은 ‘평음, 경음, 격음’이 변별적으로 대립하는 3지적 상관속을 보이고, 마찰음은 ‘평음, 경음’이 대립하므로 이들을 구분해야 한다. 학교 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음 체계는 ‘표 1’과 같다.⁴⁾

표 1. 현대국어 자음 체계표

조음위치 조음방법	순 음	치 조 음	구 개 음	연구개음	후 음
	평 경 격 음 음 음	평 경 격 음 음 음	평 경 격 음 음 음	평 경 격 음 음 음	평 경 격 음 음 음
파열음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ㅋ ㆁ	
파찰음			ㅈ ㅉ ㅊ		
마찰음		ㅅ ㅆ			ㅎ
비 음	ㅁ	ㄴ		ㅇ	
유 음		ㄹ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을 나타내는 용어들은 음성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므로 그것들은 그대로 음운자질로 이용할 수 있다. 즉, 순음, 치조음, 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은 각각 [순음성], [치조성], [구개성], [연구개성], [후음성], [파열성], [파찰성], [마찰성], [비음성], [유음성] 등의 자질명으로 이용한다.

그런데 국어의 파열음과 파찰음은 3지적 상관속을 보이므로 이 셋을 구분할 방안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평음에는 [평음성], 경음에는 [경음성], 격음에는 [격음성] 자질이 있다고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학생들이 이미 학습한 자음의 분류 기준을

4) 자음 체계표는 음성학적 분류가 아니라 음운론적으로 조정된 것이다. 예컨대,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별이나 파열음과 불파음의 구별, 탄설음과 설측음의 구별 등은 국어에서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표 1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용어는 음성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학습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는 [경음성]과 [격음성]이라는 두 개의 자질만 설정하고, 평음은 두 자질 중 어느 것도 표시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첫째에 비해 자질 수를 줄일 수는 있지만 평음을 무표로 표시하는 데에 대하여 교사가 추가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셋째는 [경음성]과 [격음성]이라는 두 개의 자질을 설정하되, 양분자질을 이용하여 평음은 [-경음성, -격음성]으로 표시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양분자질이 갖는 경제성이라는 이점을 직접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둘째 방안보다도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 첫째 방안을 택하기로 한다. 양분자질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국어의 동화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당연히 자질의 수가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그것 또한 음운의 체계에서 학습했던 용어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⁵⁾

물론, 양분자질을 도입하면 적은 자질수로 음운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은 음운자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그것으로 음운현상을 설명하자는 데에 있지 않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독서와 문법’에서 국어의 음운현상 중 동화 현상을 다룰 때, 학생들에게 별도의 큰 학습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변별자질이 갖는 설명력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음운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ㅂ’은 [순음성, 파열성, 평음성]으로, ‘ㅃ’은 [순음성, 파열성, 경음성], ‘ㄱ’은 [순음성, 파열성, 격음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⁶⁾ 자음 분류에 이용된 기준들을 자질로 이용하여 비음동화 현상을 기술하여 보기로 하자.

- (5) a. ㅂ → ㅃ / ____ {ㄴ, ㅃ} (잡는 → 잡는, 입문 → 입문)
 b. ㄷ → ㅌ / ____ {ㄴ, ㅃ} [걷는 → 걷는, 꽃만 → (꽃만) → 꼰만]
 c. ㄱ → ㅇ / ____ {ㄴ, ㅃ} (국난 → 궁난, 국민 → 궁민)
 d. [ㅂ, ㄷ, ㄱ] → [ㅃ, ㅌ, ㅇ] / ____ {ㄴ, ㅃ}
- (6) a. [순, 파, 평] → [순, 비, 평] / ____ [치 ~ 순, 비, 평]
 b. [치, 파, 평] → [치, 비, 평] / ____ [치 ~ 순, 비, 평]

5) ‘독서와 문법’(이남호 외, 2012년:298)는 음운자질을 음운교육에 도입하자는 제안을 처음으로 한 이관규 교수가 공동 집필자로 참여한 교과서인데, 여기에서 자음과 모음을 음성적 특성에 따라 나눠보는 활동을 하면서 양분적 자질 표시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같은 책(p.302)에서는 자음과 모음의 분류 기준을 자질로 이용하여, 비음동화와 ‘ㅣ’모음역행동화를 탐구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어 음운 자질의 종류, 교육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리고 그 내용도 본고와는 차이가 있다.

6) 동화현상은 아니지만, 음절말평파열음화 현상도 이 자질을 이용하여 잘 나타낼 수 있다. 예컨대, ‘있 → 입’은 [순음성, 파열성, 격음성] → [순음성, 파열성, 평음성] / ____ #’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규칙은 어말에서 조음위치의 변화는 없지만, ‘격음’이 ‘평음’으로 바뀌는 조음방법이 달라지는 현상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 준다.

- c. [연, 파, 평] → [연, 비, 평] / ____ [치 ~ 순, 비, 평]
 d. [파열성] → [비음성] / ____ [비음성]
 (순 = 순음성, 치 = 치조성, 파 = 파열성, 비 = 비음성, 평 = 평음성, 연 = 연구개성, 치~순 = 치조성 또는 순음성)

(5.a-c)는 비음동화를 분절음을 이용하여 표시한 것이고, (5.d)는 이 세 현상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그리고 (6.a-c)는 비음동화를 본고에서 제안한 자질을 이용하여 표시한 것이고, (6.d)는 이 세 현상을 통합한 것이다. (5)의 분절음을 이용한 비음동화의 기술은 왜 ‘ㅂ’, ‘ㄷ’, ‘ㄱ’이 각각 ‘ㄴ, ㅅ’, ‘ㄹ, ㅅ’, ‘ㄹ, ㄴ’으로 바뀌지 않고 ‘ㄹ’, ‘ㄴ’, ‘ㅅ’으로 바뀌는지를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ㄴ, ㄹ’의 무엇에 동화되었는지를 말해주지도 않는다. 그러나 조음위치와 조음방법 자질을 이용한 (6)은 비음동화는 조음위치는 바뀌지 않고 조음방법이 바뀌는 현상이며, 비음성이라는 자질에 동화되는 현상임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즉, ‘ㅂ’, ‘ㄷ’, ‘ㄱ’이 각각 ‘ㄴ, ㅅ’, ‘ㄹ, ㅅ’, ‘ㄹ, ㄴ’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가 조음방법만 바뀌는 동화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잘 설명해 준다. 이처럼 자음을 분류할 때 이용했던 음성학적 특징들을 음운자질로 이용하면, 별도로 자질을 설정하거나 교육하지 않고도 비음동화 현상의 원인을 분석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⁷⁾

배주채(2011:51)는 치조음과 경구개음은 조음위치만으로 변별되는 예가 없고 조음방식만으로 변별되기 때문에 음운론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치조음과 경구개음을 전설음으로, 연구개음을 후설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경우 구개음화 현상과 음절말평파열음화 현상은 조음방법만이 바뀌는 현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구개음화라는 용어가 구개음이 아닌 소리가 구개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때는 구개음화가 아니라 파찰음화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중등학교 음운 교육에서는 구개음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문법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음 분류 기준 외에 별도로 전설음, 후설음과 같은 용어의 도입과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 부담을 준다는 점, 자음과 모음의 분류에 이용한 용어와 음운현상의 용어를 일치시키는 것이 교육적 효과를 더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분류 방식을 따른다. 다만, 심화학습 자료로 이런 내용을 제시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

4.2. 모음의 분류 기준과 음운자질

모음은 목안이나 입안에서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분류 기준으로 조음위치나 조음방법이 아닌 혀의 높낮이, 혀의 앞뒤 위치, 입술의 모양 등을 이용한다.

7) ‘국력 → 국녁 → [궁녁], 막론 → 막논 → [망논]’에서 ‘국녁, 막논’으로 바뀌는 현상은 비음화 현상인데, 이것은 동화현상이 아니므로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혀의 높낮이에 의한 모음의 분류에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등이 있고, 혀의 앞뒤 위치에 따른 모음의 분류에는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이 있으며, 입술모양에 의한 모음의 분류에는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이 있다. 학교 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음체계는 ‘표 2’와 같다.⁸⁾

표 2. 현대국어 단모음 체계

혀의 앞뒤 입술모양 혀의 높낮이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閉母音]	ㅣ	ㄱ	ㅡ	ㅓ
중모음	ㅔ	ㅕ	ㅖ	ㅗ
저모음[開母音]	ㅐ		ㅑ	

모음 분류에 이용된 용어들을 모두 자질로 이용하기로 하되, 몇 가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은 각각 [전설성], [후설성], [평순성], [고음성], [중음성], [저음성]으로 바꾸어 자질명으로 이용한다. 양분자질을 이용하면,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은 [전설성]과 [후설성] 중 어느 하나만, 평순모음과 원순모음도 [원순성] 하나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은 [고음성], [저음성] 둘만 설정하면 되나 양분자질을 이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모두 다 자질로 이용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면 다소 자질수가 많아 복잡해 보기는 하지만, 모음을 분류할 때 이용한 용어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학습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모음에 의한 자음의 동화나 자음에 의한 모음의 동화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음과 모음을 통합한 자질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송철의(2008: 45, 47)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원순모음화가 동화현상임을 규칙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서는 순자음과 원순모음에 공통되는 자질로 [순음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개음화 현상이 동화현상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음과 모음에 공통되는 자질인 [구개성] 자질을 전설모음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4)에서 보듯이 교과서의 음운 교육 내용에 원순모음화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순음성] 자질을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구개성] 자질만 새로 도입하면 된다. [구개성]은 경구개음과 전설모음이 공통으로 지니는 자질이다. 구개음화 현상을 비교하여 보이

8) ‘표 2’는 자음과 마찬가지로 음성학적 분류가 아닌 음운론적 조정을 거친 것이다. 음성학에서 혀의 앞뒤 위치에 따른 모음의 분류는 ‘전설, 중설, 후설’이며, 혀의 높낮이에 의한 분류는 ‘고모음, 반고모음, 반저모음, 저모음’이다. 그러나 국어에서 중설과 후설의 구분은 음운론적으로 의미가 없고, 혀의 높이도 ‘고, 중, 저’ 세 단계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이 모음체계에서 ‘으’와 ‘우’, ‘어’와 ‘오’는 중설과 후설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원순성 유무에 의한 구분이다. 그러나 용어는 음성학적 용어이므로 그것을 그대로 이용한다.

면 (7)과 같다.

(7) 구개음화

- a. [치, 파] → [구, 찰] / ____ + [전, 고, 평] 예. 굳이 → 구지
 - b. [치, 파] → [구, 파] / ____ + [전, 구, 평, 고]
- (치=치조성, 파=파열성, 구=구개성, 찰=파찰성, 전=전설성, 평=평순성, 고=고음성)

(7a)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이 동화현상임을 보여주지 못하나 (7b)에서는 치조음이 후행하는 구개성 자질에 동화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 준다.

이제 모음분류 자질을 이용하여 음라우트 현상을 설명해 보기로 하자.

- (8) a. 아 → 애 / ____ {ㄱ, ㅂ} 이 : (아끼다 → [애끼다], 아비 → [애비])
 - b. 어 → ऐ / ____ {ㄴ, ㄷ} 이 : (어미 → [애미], 떡이다 → [매기다])
 - c. [아, 어] → [애, ऐ] / ____ {ㄱ, ㄴ, ㅂ, ㄴ} 이
 - (9) a. [후, 저, 평] → [전, 저, 평] / ____ {ㄱ, ㅂ} [전, 고, 평]
 - b. [후, 중, 평] → [전, 중, 평] / ____ {ㄴ, ㄷ} [전, 고, 평]
 - c. [후] → [전] / ____ {ㄱ, ㄴ, ㄴ, ㅂ} [전]
- (전 = 전설성, 후 = 후설성, 고 = 고음성, 저 = 저음성, 평 = 평순성)

(8a, b)는 음라우트 현상을 분절음을 이용하여 표시한 것이고, (8c)는 이 두 현상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9a, b)는 음라우트 현상을 본고에서 제안한 모음자질을 이용하여 표시한 것이고, (9c)는 이 두 규칙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8)의 규칙에서는 ‘아, 어’가 ‘ㄱ, ㄴ, ㅂ, ㄴ’와 같은 자음을 사이에 두고 ‘이’를 만나 각각 ‘애, ऐ’로 바뀌고 있다는 표면적 현상만을 보여주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9)에서는 자음을 사이에 두고 후행하는 전설모음의 영향을 받아 피동화음이 전설모음으로 바뀌되, 혀의 높이나 입술의 모양은 바뀌지 않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자음과 모음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음운자질로 이용하면, 학습의 부담이 없이도 동화 현상의 원인을 잘 드러낼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5. 음운자질을 이용한 동화교육의 실제

앞 장에서 제안한 음운자질을 이용하여 ‘비음동화 현상’과 ‘음라우트 현상’을 수업하는 과정을 제시해 보겠다. 완전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수업의 진행에 따른 교사의

담화 위주로 제시하되, 비음동화는 좀 자세하게 수업 진행 과정을 제시하고, 모음은 음라우트 현상을 대상으로 교사의 담화만을 제시한다.

(10) 교수·학습 활동 예시

a. 자음 분류 기준을 이용한 비음동화 교수·학습 과정

- 수업 목표 : 음운의 변동 원인을 말할 수 있다.(비음동화를 중심으로)
 - 수업 방법 : 설명식 수업, 탐구학습, 협동학습
 - 학생의 학습 상태 : 자음과 모음의 체계를 학습한 학생
 - 준비물 : 자음체계표
 - 수업 시간 : 50분
 - 수업 활동
- 교사 : 국어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면서 다음 예에서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바뀐 음 뒤에는 어떤 음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 예) 먹는 → 멧는, 국물 → 궁물
- ☞ 학생 : ‘ㄱ’이 ‘ㅇ’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는 ‘ㄴ’과 ‘ㄹ’이 있습니다.
- 교사 :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을 ‘비음동화’라 합니다. 비음동화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비음이 아닌 소리가 뒤에 오는 비음에 동화되어서 비음으로 바뀌어 소리가 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현상을 규칙으로 형식화해 볼까요?
- ☞ 학생 : …….
- 교사 :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ㅇ/____ {ㄴ, ㄹ}’. 이 규칙이 의미하는 바는 ‘ㄱ’이 ‘ㄴ’ 또는 ‘ㄹ’ 앞에서 ‘ㅇ’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ㄱ’은 왜 ‘ㅇ’으로 바뀌었을까요?
- ☞ 학생 : ‘ㄴ’, ‘ㄹ’에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 교사 : 맞습니다. 그런데 ‘ㄴ’, ‘ㄹ’의 어떤 성질에 동화된 것입니까?
- ☞ 학생 : …… , ‘비음’에 동화된 것입니다.
- 교사 :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 국어 비음에는 ‘ㄴ, ㄹ, ㅇ’이 있는데, ‘ㄱ’은 왜 ‘ㄴ’이나 ‘ㄹ’으로는 바뀌지 않고 ‘ㅇ’으로만 바뀔까요?
- ☞ 학생 : …….
- 교사 : 오늘 학습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ㄱ’은 ‘ㄴ, ㄹ’이 지니고 있는 어떤 성질에 동화되었으며, ‘ㄱ’은 왜 ‘ㄴ, ㄹ’으로는 바뀌지 않고 ‘ㅇ’으로만 바뀌는지 알아 볼 겁니다.
- (칠판에 자음체계표를 붙인다.)
- 교사 : 오늘은 자음을 분류할 때 사용했던 용어를 이용해서 비음동화 현상을 설명하는 학습을 할 겁니다. 자음체계표를 보면서 선생님의 설명을 듣습니다.

☞ 학생 : (교사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는다.)

- 교사 : 음성적으로 자음은 폐에서 올라온 공기가 입 밖으로 나오는 동안 입안이나 목 안에서 장애를 받아 나는 소리이고, 모음은 그런 장애가 없이 나오는 소리입니다. 자음의 경우 그 장애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따라 분류하는데, 장애를 받는 위치를 조음위치라 하고, 장애를 받는 방법을 조음방법이라 합니다. 조음위치나 조음방법은 모두 음성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받는 위치, 즉 조음위치에 의한 자음의 분류는 앞에서부터 두 입술인 순음, 혀끝과 입몸 부위인 치조음, 혀의 앞부분과 경구개부위인 (경)구개음, 혀의 뒷부분과 연구개 부위인 연구개음, 목구멍인 후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음위치에 의해 분류한, '순음, 치조음, 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각각에 속하는 음들은 조음위치라는 점에서 공통되는 특성을 지니겠군요. 즉, 'ㄴ, ㅁ, ㄷ, ㄹ'은 공통적으로 '순음'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음'이란 용어는 조음위치와 관련된 용어이므로 그것이 어떤 특성을 나타낸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그것을 '순음성'이라 부르기로 합니다. 그러면 '순음성'을 공통 특성으로 하는 자음은 'ㄴ, ㅁ, ㄷ, ㄹ'이지요? 나머지 조음위치 용어도 모두 이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치조음'은 '치조성'으로 바꿀 수 있고, 거기에 속하는 자음 'ㄷ, ㅌ, ㅈ; ㅅ, ㅆ, ㄴ, ㄹ'은 '치조성'이라는 조음위치 자질을 공통으로 지니게 됩니다. 그러면 구개음과 연구개음, 후음도 이처럼 바꿔봅시다. 그리고 자음체계표의 해당 용어 옆에 '순음성', '구개성' 등으로 바꾼 용어를 적어 놓읍시다.

☞ 학생 : (자음체계표에 해당 용어를 적는다.)

- 교사 : 그러면 이제 조음방법과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자음분류를 학습하였으므로 조음방법에 대해서는 앞의 조음위치에서 했던 것처럼, 조음방법과 관련된 용어를,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바꾸기만 하겠습니다. '파열음'은 '파열성'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함께 바꿔보면서 그것을 자음체계표 상에 적어 봅시다.

☞ 학생 : (바꾼 용어를 자음체계표에 적고, 교사가 제시한 것과 비교한다.)

- 교사 :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자음이 조음위치의 특성과 조음방법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음체계표에 적어 놓은 것을 참고하면, 'ㄴ, ㅁ, ㄷ'은 순음성과 파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ㄹ'은 어떤 음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 학생 : (자음체계표를 참조하여) 순음성과 비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교사 : 우리는 지금까지 자음 분류에 이용했던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에 대한 용어를 음성적 특성이 드러나는 용어인 '-성'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음운이 지니고 있는 음성적 특성을 '자질'이라 합니다. 즉, 음운은 자질들의 집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음성적 특성을 '자질'이라 부르겠습니다.

니다. 여러분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분절음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가정 하에서 음운 현상을 학습했습니다. 즉, 앞에서 보았던 ‘ㄱ→ㅇ / ____ {ㄴ, ㅁ}’은 분절음 단위로 음운 현상을 기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절음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기술은 앞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성질에 동화되고, 왜 그렇게 바뀌는가를 설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자질은 분절음을 더 작은 음성적 특성으로 나눈 것이므로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런데 국어는 파열음, 파찰음이 평음과 경음 격음이 서로 대립적이어서 의미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각이 서로 다른 음운입니다. 즉, 평음이나, 경음이나 아니면 격음이나에 따라 의미가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순음성’과 ‘파열성’의 자질만을 가지고는 이 세 음운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세 가지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음체계표에서는 ‘평음, 경음, 격음’이라는 용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앞에서 했던 것처럼 각각 ‘평음성, 경음성, 격음성’으로 고쳐 부르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ㅂ’은 ‘순음성, 파열성, 평음성’을 가진 소리라 부를 수 있겠죠? 이제 ‘ㄴ, ㅌ, ㅇ’을 자질로 나타내 봅시다.

- ☞ 학생 : ㄴ = 치조성, 비음성, 평음성 / ㅌ = 구개성, 파찰성, 격음성
 ㅇ = 연구개성, 비음성, 평음성
- 교사 : 이제 이런 자질들을 이용하여 비음동화를 살펴봅시다.

예) 먹는 → 명는, 국물 → 궁물 : ‘ㄱ→ㅇ / ____ {ㄴ, ㅁ}’

이제 이 규칙을 자질을 이용하여 표시해 봅시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질은 대괄호에 넣어 표시하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이 시범을 보일 테니 다른 하나는 여러분이 해 보세요.

ㄱ → ㅇ / ____ ㄴ : [연, 파, 평] → [연, 비, 평] / ____ [치, 비, 평]

- ☞ 학생 : ㄱ → ㅇ / ____ ㅁ : [연, 파, 평] → [연, 비, 평] / ____ [순, 비, 평]
 (연 = 연구개성, 파 = 파열성, 평 = 평음성, 비 = 비음성, 치 = 치조성, 순 = 순음성)
- 교사 : 이제 두 규칙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 봅시다. 먼저 두 규칙에서 바뀐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단순화해 봅시다. 바뀐 것만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열성] → [비음성] / ____ [치조성/순음성, 비음성, 평음성]

이 규칙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음방법 자질인 파열성이 뒤에 오는 비음성에 동화되어 비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뒤에 어떤 조음위치의 비음이 오든 원래 자신이 지니고 있던 조음위치의 비음으로만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자면, 비음동화란 조음위치는 바뀌지 않고, 조음방법만이 바뀌는 동화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질문의 답을 여러분이 할 차례입니다. 앞에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국어 비음에는 ㄴ, ㄹ, ㅇ이 있는데, ‘ㄱ’은 왜 ‘ㄴ’이나 ‘ㄹ’으로는 바뀌지 않고 ‘ㅇ’으로만 바뀔까요?

- ☞ 학생 : 비음동화는 조음방법만 바뀌고 조음위치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ㄱ’은 같은 조음위치의 비음인 ‘ㅇ’으로는 바뀌지만, 조음위치가 다른 ‘ㄴ, ㄹ’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 교사 :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의 예를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자질로 표시해 보고 어떤 동화에 속하는지 10분 동안 모둠별로 확인해 봅시다. 단, 된소리 되기는 무시하되, 활동은 제시한 단계를 따릅니다.

- 예) 1. 잡는 → 잠는, 밥만 → 밤만
- 2. 감기 → 강기, 문법 → 뭉뻬[뭉뻬]

단계

- ⓐ 어떤 자음이 어떤 자음 앞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규칙으로 쓴다.
- ⓑ 자음체계표를 참고하여 규칙을 자질로 표시해 본다.
- ⓒ 어떤 자질이 어떤 자질 앞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한다.
- ⓓ 규칙이 드러내는 바를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살핀다.

- ☞ 학생 : 모둠별로 활동한다.
- 교사 : 자, 그럼 모둠별로 활동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 ☞ 학생 : 모둠별 발표(생략)
- 교사 : 마무리(생략)⁹⁾

b. 모음의 분류 기준을 이용한 옴라우트 현상 탐구

- 수업 목표 : 모음에 의한 동화 현상의 원인을 말할 수 있다.
- 수업 방법 : 설명식 수업, 탐구학습, 협동학습
- 준비물 : 모음 체계표
- 수업 활동
- 교사 : (모음체계표를 칠판에 붙인다.) 다음 예를 봅시다.
- 예) 아기 → 애기, 어미 → 예미

9) 다른 동화 현상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학습 순서는 자음끼리의 동화 현상과 모음끼리의 동화 현상을 먼저 학습하고 모음에 의한 자음의 동화나 자음에 의한 모음의 동화 현상은 나중에 학습한다. 후자가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심화 학습으로 원순모음화 현상을 제시하고 [원순성] 자질을 이용할 때와 자음과 모음에 공통되는 [순음성] 자질을 사용할 때의 장단점을 토의할 수 있다. 그리고 치조음과 경구개음을 [전설성]으로, 연구개음을 [후설성]으로 하였을 때, 음절말평파열음화와 구개음화는 어떻게 기술되어야 하는지 등도 탐구할 수 있다.

(예)에서 ‘아’가 ‘애’로, ‘어’가 ‘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의 모음체계표에 어떤 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화살표로 표시해 봅시다.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죠? 왜 전설모음으로 바뀐 걸까요? 그것은 뒤에 있는 전설모음 ‘이’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는 동화주이고 ‘아’와 ‘어’는 피동화주인데, 그 사이에 자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 ‘ㄱ’과 ‘ㄴ’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분절음을 이용하여 이것을 형식화하면 (a)와 같습니다.

(a) 아 → 애 / _____ ㄱ{이} 어 → 에 / _____ ㄴ{이}

그런데 비음동화를 설명하기 위해 자음의 분류기준을 변별자질로 이용했던 것처럼 모음도 분류기준을 변별자질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음에서 했던 것처럼, 전설모음은 [전설성], 원순모음은 [원순성], 고모음은 [고음성]과 같이 용어만을 바꾸어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모음은 [전설성, 평순성, 고음성]이라는 자질을 가지게 되겠죠. 여러분은 ‘어, 아, 에, 애’를 이런 음운자질로 표시해 보세요.

- 교사 : 이제 분절음으로 표시된 (a)를 음운자질을 이용하여 표시해 봅시다. 우선 자음은 그대로 둡니다. 선생님이 (a)중 하나를 써 볼 테니 이것을 참조하여 여러분은 나머지를 써 보세요.

(b) 아 → 애 / _____ ㄱ{이} :

[후, 평, 저] → [전, 평, 저] / _____ ㄱ{전, 평, 고}

(후=후설성, 평=평순성, 저=저음성, 전=전설성, 고=고음성)

이 규칙이 의미하는 바는 ‘아’가 자음을 사이에 두고 후행하는 ‘이’의 전설성에 동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역행동화’는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높이를 변화시키지는 않고 단순히 혀의 앞뒤 위치만 변화시키는 동화현상이라는 것입니다.

- 교사 : 그러면 다음 예를 이용하여 모듈별로 활동을 해 보되, 제시된 단계를 따릅니다.

(c) 종일 → 정일, 구경 → 귀경

단계

- ① (c)의 예를 앞과 같은 방식으로 음운자질을 이용하여 표시해 봅시다.
- ② 표시한 규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 ③ (c)와 (b)는 같은 현상인지 다른 현상인지 살펴보고 왜 그런지 말해 봅시다.
- 학생 : 모듈별로 활동과 발표(생략)
- 교사 : 마무리(생략)

6. 맺음말

음운자질을 이용하여 음운교육을 하는 목적은 학생들에게 분석적 사고를 길러주고 음운 현상을 원리적인 면에서 탐구하자는 데에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어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인 문법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또 부수적으로는 음운 단위를 달리 했을 때, 그것이 음운 현상에 대하여 얼마나 설명력이 있는지를 학생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의 중요성 또는 분석 단위의 중요성 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깨침은 학생들의 문법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동인이 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두 가지를 제안했다. 하나는 음운자질을 음운교육에 도입하되, 자음과 모음의 분류 기준을 그대로 음운자질로 이용하고, 이런 음운자질을 이용하여 국어의 동화현상을 탐구하는 활동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음운체계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음운자질 학습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학습 부담을 주지 않고, 교사에게도 교육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질이론이 갖는 장점을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음운자질을 이용한 교육은 선택 과목인 '독서와 문법' 과목에서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통과목인 '국어'와 선택 심화 과목인 '독서와 문법'이 차별화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무림 · 김옥영. (2009). *국어음운론*. 서울: 새문사.
- 김유범. (2010). 국어 음운론 교육의 새로운 방향 찾기를 위한 제언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과 선택 과목의 구성과 관련하여-. *우리말연구*, 26, 15-233.
- 나영은. (2012). 변별적 자질을 활용한 국어 음운 교육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민현식. (2002). 국어 지식의 위계화 방안 연구. *국어연구*, 108, 67-125.
- 배주채. (2011). *국어음운론 개설(개정판)*. 서울: 신구문화사.
- 송철의. (1996/2008). 국어의 음운현상과 변별자질. *한국어 형태음운론적 연구* (pp.37-53). 서울: 태학사.
- 이관규. (2004). 학교 문법에 있어서 음운자질의 설정에 대한 연구. *우리말연구*, 14(1), 171~191.
- 이기문 · 김진우 · 이상역. (2000). *국어음운론(증보판)*. 서울: 학연사.
- 이진호. (2005). *국어 음운론 강의*. 서울: 삼경문화사.
- 조창규. (2012). 국어 음운 변동의 교육 방법. -개념 획득 학습 모형과 음운체계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83, 551-573.
- 최명옥. (2004). *국어 음운론*. 서울: 태학사.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 국어*.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에 따른.
- 교육과학기술부. (2011).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5].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5].
- 교육부. (1997).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5].
- 김대행 외. (2010). *고등학교 국어(상)*. e-교과서. 천재교육.
- 김병권 외. (2010). *고등학교 국어(상)*. e-교과서. 디텍스트.
- 김상욱 외. (2012). *중학교 국어 3-2*. 창비.
- 김종철 외. (2010). *고등학교 국어(상)*. e-교과서. 천재교육.
- 김종철 외. (2012). *중학교 국어 3-1*. 도서출판 디딤돌.
- 남미영 외. (2012). *중학교 생활국어 3-1*. 교학사.
- 노미숙 외. (2012). *중학교 국어 3-1*. 천재교육.
- 문영진 외. (2011). *고등학교 국어(상)*. 창비.
- 민현식 외. (2011). *고등학교 국어(상)*. 좋은책 신사고.
- 박갑수 외. (2010). *고등학교 국어(상)*. e-교과서. 지학사.
- 박경신 외. (2012). *중학교 국어 3-1*. 대교.
- 박영목 외. (2011). *고등학교 국어(하)*. 천재교육.
- 박영목 외. (2012). *독서와 문법 1(교사용 지도서)*. 천재교육.
- 박호영 외. (2011). *고등학교 국어(상)*. 유웨이중앙교육.
- 방민호 외. (2010). *고등학교 국어(상)*. e-교과서. 지학사.
- 방민호 외. (2012). *중학교 국어 3-2*. 지학사.
- 오세영 외. (2010). *고등학교 국어(상)*. e-교과서. 해냄에듀.
- 오세영 외. (2012). *중학교 국어 3-1*. 해냄에듀.
- 왕문용 외. (2012). *중학교 국어 3-1*. 대교.
- 우한용 외. (2010). *고등학교 국어(상)*. e-교과서. 두산동아.
- 윤여탁 외. (2011). *고등학교 국어(상)*. 미래엔.
- 윤여탁 외. (2012). *중학교 국어 3-1*. 미래엔.
- 윤여탁 외. (2012). *독서와 문법 1.(교사용 지도서1)*. 미래엔.
- 윤희원 외. (2011). *고등학교 국어(상)*. 금성출판사.
- 윤희원 외. (2012). *중학교 국어 3-1*. 금성출판사.
- 이남호 외. (2012a). *중학교 국어 3-2*. 미래엔.
- 이남호 외. (2012b). *독서와 문법 1(교사용 지도서)*. 비상교육.

- 이삼형 외. (2011). *고등학교 국어(상)*. 도서출판 디딤돌.
이삼형 외. (2012). *독서와 문법 1*. 지학사.
조남현 외. (2011). *고등학교 국어(상)*. 교학사
조동길 외. (2012). *중학교 국어 3-1*. 비상교육.
한철우 외. (2011). *고등학교 국어(하)*. 비상교육.

조창규

570-749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전화: (063)850-6506

이메일: ccgyoo@wku.ac.kr

Received on June 28, 2013

Revised version received on August 23, 2013

Accepted on September 5, 2013